

이기는 삶

민족의 정서 이순신



오늘날 K팝, 드라마, 영화, 예술, 음식, 언어 등 한국의 문화에 세계인이 열광하는 것은 내용이 좋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세계인들이 동경(憧憬)하고 공감(共感)하는 한국인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중 역사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할 때 절대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 있으니 그중의 한 명이 바로 이순신이다. 한국인의 정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순신의 삶은 우리 민족의 영웅이자 영원한 본보기이기 때문이다. 이순신의 삶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순신의 삶을 통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자.

1.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2.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서른들의 늦은 나이에야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3.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의 말단 수비 장교로 전전했다.
4. 뒷사람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불의한 직속상관들과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5. 몸이 약하다고 고만하지 마라. 나는 평생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았다.
6.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마흔일곱의 나이에 제독이 되었다.
7. 조직의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었고 스물세 번 싸워 스물세 번 이겼다.
8. 뒷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지 마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빼앗긴 채 옥살이를 해야 했다.
9. 자원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열세 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10.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스무 살의 아들을 적의 칼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다.
11.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서 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2.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서른들의 늦은 나이에야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3.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의 말단 수비 장교로 전전했다.

4. 뒷사람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불의한 직속상관들과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5. 몸이 약하다고 고만하지 마라.

나는 평생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았다.

6.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마흔일곱의 나이에 제독이 되었다.

7. 조직의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었고 스물세 번 싸워 스물세 번 이겼다.

8. 뒷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지 마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빼앗긴 채 옥살이를 해야 했다.

9. 자원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열세 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10.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스무 살의 아들을 적의 칼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다.

11.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소리 듣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어정쩡하게 넘어가거나, 힘들고 일이 잘되지 않을 때마다 환경 탓, 남의 탓,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려운 일을 회피하려 했던 적은 없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자.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혼신을 다하여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타산의 계산에 밝아 너무 안이하지 않았는지, 맨주먹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야 했던 그러면서도 결코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이순신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야 하겠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너무 놀라운 기쁨과 희열 So much joy and ecstasy

“모든 슬픔과 아픔을 벗어난 후 영원히 즐거워하리” 이것은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이다. 그 즐거움은 인간의 즐거움이 아니다.

▶ “After all sorrow and pain, I will rejoice forever” This is something that cannot be expressed in human words. That pleasure is not human pleasure.

6000년 동안의 인간의 즐거움과 기쁨과 희열을 몽땅 합해도 천국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

▶ Even if you add up all the joys, joys, and ecstasy of mankind for 6,000 years, it is incomparable to enjoying the joys and joys of heaven.

그러나 누구도 그 기쁨을, 너무나 행복한 그 기쁨을 맛본 자가 없었던 것이다.

▶ But no one had ever tasted that joy, that joy that was so very happy.

그런고로 일단 그 기쁨을 맛본 자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일 초도 놓칠 수가 없는 것이다.

▶ Therefore, once they taste the joy, they can never leave God. You cannot miss a single second.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만족하므로 인간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도 놀라운 기쁨과 희열이다.

▶ It is so wonderful, so very happy, so very satisfying, so amazing joy and ecstasy that human beings cannot even imagine.*

- From the words of the Victor Christ.

by Alice

영적 상징과 꿈 <26>

부제: 中에 대하여



<中, 알맹이에 대하여.> 이 글은 20여 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오래 전의 글이지만 그 내용은 지금에서도 그닥 바뀔 것이 없습니다. 인간적 알음알이가 아니라, 우물물처럼 일정 깊이 이상의 층에서 하나님이 친히 퍼 올려 주신 내용은 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中, 알맹이에 대하여.>

나를 알지 못하고는 단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습니다. 어둠뿐입니다. 나를 알면 길이 열릴 듯합니다. 이제까지 몇몇 전제들만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나름의 모델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 글에서 우리는 기존의 동서양의 가설들을 더듬어 가면서 그 가설들의 공통점, 그 가설들을 관통하는 흐름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보아려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중심을 향해 열린 길, 아니 거꾸로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열린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I. 선승(禪僧) 소크라테스 - 이 무엇이고? -

소크라테스가 새로운 종교를 내세워 흑세무민하며 돈을 쟁겼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사형 당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보면 그를 기소한 죄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소크라테스는 당시 국가에서 믿던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믿고 있다.

둘째, 소크라테스는 이단적 가르침으로 젊은이들을 혼란시켜 타락시키고 있다.

셋째,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 가르치며 돈을 쟁겨왔다.

당시 아테네는 소크라테스에게 왜 그토록 높았으며 그를 없앨 수밖에 없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내면에서 들리는 신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이 다이몬의 소리는 내가 잘못을 하려하면 내게 경고하곤 했다.”

당시의 아테네인들과는 달리 외부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에 존재하는 내면의 신성을 깨달았던 그는 차라리 선승(禪僧)이었을 것입니다. 아테네가 기겁을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말합니다. “나 자신이 무지 자체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첫 출발이다.” 그는 ‘나라는 것은 버려야 할 무지의 껍데기일 뿐이며, 지혜는 오직 현재의 나를 버리고서야 등장하는 중심(中心)의 또 다른 나, 진정한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그의 외침은 전 인류를 향해 던진 화두(話頭)에 다름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당시의 아테네 사람들, 아니 그의 제자들조차 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세상은 결코 그를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살해하고 마는 세상의 무지를 향해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잘못된 신을 믿고 있고 심지어 무신론자라고까지 매도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고발한 사람들이 믿는 것보다 더 높고 더 깊은 경지에서 신을 알고 있습니다.”

시대를 격(隔)해 소크라테스를 이어받아 니체도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 형제여, 그대의 모든 생각과 감정의 배후에는 <본래의 자기>라는 낮은 현자가 있다. 그대의 자기는 그대의 자아와 자아의 자랑스런 도약을 비웃는다. 자기는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 “나는 자아를 끌고 가는 줄이며 자아의 모든 개념을 제시하는 자이다.” 라고 -

니체 또한 표면의 자아와 그 배후의 진정한 자기(des Selbst)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표현은 다르지만 니체와 소크라테스는 이렇듯 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II. 성왕(聖王) 요·순(堯·舜) - 中에 대하여 -

‘中’의 개념을 빼고는 동양 철학이 성립할 수 없을 정도로 ‘中’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中’이란 말은 서경(書經)의 대우모 「大禹謨」 편에서 전설상의 황제인 요(堯)와

순(舜)이 말한 것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논어(論語)의 요왈 「堯曰」 편이나 주희(朱熹)의 중용장구서(中庸章句序), <맹자>, <노자>, <장자> 등을 비롯 수많은 경서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학자나 종교가들은 대체로 이 ‘中’의 뜻을 지나침이 없는 조화로운 중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적당한 중도(中道)’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中庸)의 개념이 그러하고 주자(朱子), 자사(子思), 정자(程子)를 위시로 한 정주(程朱)학파의 입장이 그러했습니다.

순자(荀子) 또한 저울에 비유하여 균형을 강조한 개념으로서의 ‘中’을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주장들은 거의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의 입장은 ‘中’의 참뜻에 대한 정교하고도 집요한 왜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中’은 좌와 우의 중간이 아닙니다. 인간과 만물의 중심 ‘中心’이며 중앙(中央), ‘알맹이’를 뜻합니다. 즉, ‘존재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中은 파자(破字)로 풀어보아도 예운담 몸(口)에 뚫을 관(口)이 합쳐진 글자로서, 중심의 알맹이가 껍데기를 뚫고 나온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이 비밀은 이기신 하나님, 이간자의 등장과 함께 처음으로 밝혀진 부분입니다.

이간자께서는 벌레 총(虫)을 이간자 자신의 상징인 네 생물의 왕(虫)이라 풀어 주셨습니다.

사각(口)은 네 생물을 상징하며, 뚫을 관(口)은 일(日) 즉, 하나님이기도 하고 ‘뚫고 나오다’의 뜻이기도 하니 ‘中’이란 글자 자체가 ‘나라는 의식에 가려있던 알맹이’ 즉, 마귀 욕에 갇혀있던 하나님이 그 욕(慾)을 뚫고 나오는 장면을 형상화한 글자일 것입니다.

결국 중(中)은 총(虫)과 영적으로 동의어입니다. 중(中)은 존재의 중심이자 이간자에서 말씀하신 네 생물의 왕을 상징합니다.

이 네 생물의 왕, 존재의 중심으로서의 중(中)이 여러 경전과 문헌에 어떻게 등장해왔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용(中庸)을 보겠습니다. 요(堯) 임금은 순(舜)에게 “윤집기중 允執其中 : 마땅히 그 중을 잡으라.” 하였고, 순(舜) 임금은 다시 우(禹) 임금에게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其中 : 人心은 위태롭고 道心은 가리워져 있으니, 오직 한결같이 그 중을 잡으라.” 고 했습니다.

부연하자면, 인심(人心)은 나라는 의식(I-ness), 마귀의 마음이니 위험하다 한 것이며, ‘도심(道心)이 은미(隱微)하다’는 말은 내면의 신성(神性), 하나님의 신이 마음 중심에 가두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윤집기중(允執其中)’ 이 말은 껍데기의 마음, 나라는 주체(主體)를 버리고, 오로지 내 중심(中心)의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후대의 장자(莊子)는 이를 이어 받아 ‘中’앞에 ‘테두리 環’ 한 글자를 덧붙여 ‘環中’ 이라고 표현하여 ‘中’이 둥그런 테두리, 즉 ‘껍데기로 둘러싸인 일체적 존재의 중심’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형상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춘추좌전(春秋左傳)의 「成公十三年條」에서는 “民受天地之中以生 民受천지중이생 : 백성은 天地의 中을 받아 태어났다.”라고 하였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中’을 중심 자리의 하나, 내지 마귀 욕을 뚫고 나온 네 생물의 왕’으로 보고 이해하면 이 구절은 “사람은 천지의 중심 즉, 하나님의 신을 받아 태어났다.”라는 의미의 말이 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용(邵雍)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天地之本 천지기본 其起于中乎 기우중호 乾坤屢變而 건곤누변이 不離乎中 불리호중 人居天地之中 인거천지지중 心居人之中 심거인지중 心爲太極 심위태극 太極爲性 태극위성 日中即盛 일중즉성 月中間盈 월중즉영 故君子貴中也 고군자귀중야”

“천지의 근본은 중심에서 일어나니, 천지가 변해도 중(中)에서 떨어지지 않는구나.

사람은 천지의 중심에 거하며, 마음은 사람의 중심에 있나니, 마음이 태극이요 태극은 곧 性이라. 마음의 중심이 곧 성성함이요, 태양의 중심이 곧 성성함이요, 달의 중심이 곧 가득 참이라. 고로 군자는 중(中)을 귀하게 여긴다.”

반대로 중(中)은 마음의 중심, 마음의 본자리, 자성(自性)을 뜻합니다. 이 자리는 here & now, ‘지금 이 순간의 자리’이며 내 마음과 존재의 중심(中心), 바늘 끝 한점의 자리입니다.

이 땅은 나라는 의식의 껍데기의 층을 벗어난 중앙, 중심자리이며 부유하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절대 중심의 자리이며 이간자께서 슬관처럼 말씀하시는 “이제 그대로”의 자리입니다.

性은 생과 심이 합쳐진 글자로서 파자로 풀면 ‘생명의 마음’ 즉, ‘생명의 영’ 즉, 하나님을 뜻합니다. 해서 선불가진승어록(仙佛家眞修證錄)에서도 “心은 魔音 心(마귀소리, 마음 심)이요, 性은 聖品 性(성스러운, 성품 성)”이라 했지요.

마음의 변동리에 머물지 말고 마음의 중심자리에 거하라!

이변처중(離邊處中)의 참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中’을 중심 자리의 하나님, 마귀 욕(慾)을 뚫고 나온 네 생물의 왕’으로 보았을 때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황극경세서의 이 구절은 참으로 음미할 만합니다.

이는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은 인간이며 나아가 인간의 중심인 바, 인간의 중심은 바로 ‘性’ 즉 생명의 마음이요 하나님이니 인간의 내면 그 중심(中心)을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동서양의 여러 경전과 원전들을 통해 등장한 ‘中’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선각(先覺)들이 인간과 삼라만상의 중심, 본래의 나, 생명의 마음을 ‘中’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양의 스승들은 진실은 밖에 있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진실은 존재의 깊은 곳, 그 중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와 내가 없는 곳, 당위와 도그마가 없는 곳, 언어와 사변(思辨)이 끊어진 바늘 끝 한점의 그곳,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 자신의 중심을 만난 자, 온갖 것의 중심을 이미 만난 것이라 가르칩니다.

진실이 밟히고 있는 곳은 오직 내면의 중심뿐입니다.

그 중심이 완성자의 시대에 와서 활짝 개화한 것이 바로 네 생물의 왕으로 완성된 중(中) 즉, 총(虫)인 것입니다.*

넷째로, 석가모니가 《아함경》에서 설한 ‘이변처중(離邊處中)’에서도 중(中)이 등장합니다.

“이변처중(離邊處中)”에 대해 불교는 “양극단으로 치달아서는 안 되며 균형 잡힌 중도(中道)의 길을 가야한다.”는 의미라는 기존의 입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만, 이변처중(離邊處中)의 참뜻은 그러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중간이라는 정도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中)도 마음의 땅이며 존재(存在)입니다. 변(變)은 마음의 변동리 즉, 마귀 껍데기, 나라는 의식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金澤 / 의사 kimtaek8@nate.com